

민주 현역의원 동반탈락 ... 甲 경선후보 결정연기 ... 乙야권연대

광주 서구 '충격과 혼돈' 속으로

새누리 이정현·무소속 정용화 후보도 선전

4·11 총선을 앞두고 광주 서구가 '충격과 혼돈'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우선 서구 갑과 서구 을의 현역 국회의원의 조영택 의원과 김영진 의원이 민주통합당 경선 캠프에서 동반 탈락하면서 충격과 혼돈을 겪고 있다.

조 의원은 이 같은 결정에 반발, 사실상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상황이며 김 의원도 무소속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선거 판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여기에 서구 을은 지난 10일 야권연대 협상 결과, 민주통합당 경선 후보들이 융화되고 통합진보당 오병운 후보로 단일화가 이뤄져 충격과 혼돈이 예상된다.

당장, 민주통합당 경선을 치르지 못하게 된 서대석 예비 후보와 이상

갑 예비 후보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서 예비 후보와 이 예비 후보는 12일 국회에서 통합진보당 오병운 후보와의 3자 '원 샷 경선'을 제의할 예정이다.

이 같은 제안이 무산된다면 두 예비 후보는 여론조사 단일화를 통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서 예비후보는 "이것이 위한 야권연대가 해야 하는데 서구 을의 경우 이와는 거리가 있다"며 "이상갑 예비 후보와의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서구 갑도 경선 후보 선전이 늦어지면서 관세의 유동성을 높이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당초 경선 후보자를 박해자·장하진 두 사람으로 결정

했으나 송갑석 예비후보 탈락에 대한 당내외의 반발이 커져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심위에 재심의를 요청한 상황이다.

민주통합당은 12~13일 공천심사위원회를 가동, 송갑석 후보의 경선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서구 갑의 후보 공천은 광주 선거구 가운데 가장 늦어지게 됐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의 이정현 후보와 새누리당 출신의 무소속 정용화 후보는 바닥을 다지며 지지층을 넓혀가고 있다.

두 후보는 지역민의 인지도와 지지도가 만만치 않아 민주통합당의 후보 공천에 대한 민심 이반이 커지고 다자 구도도 선거가 이뤄질 경우, 이번이 일어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

이 후보는 "지난 18대 국회 4년 동안 '호남 예산 지킴이'로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다"며 "이번에 지역민이 저를 지켜주신다면 광주·전남 발전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부시장과 행정자치부 차관을 역임한 무소속의 정준 후보도 점차 지지세가 확장되며 서구 을의 '다크호스'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 지역 정치권의 관측이다.

이처럼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서구 선거의 최대 변수는 말없이 지켜보고 있는 서구 민심이라는 평가다. 지난 서구청장 선거 및 서구청장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를 두 번이나 낙선시킨 바 있기 때문이다.

두 번의 학습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총선에서도 서구 민심은 민주통합당 후보에 대한 '문지마 지지'보다는 정확하고 냉정한 심판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청년비례대표 1위 순천출신 김광진씨

"청년이 꿈꾸는 사회 만들겠다"

청년대표 최고위원에 ... 당선권 배치

민주통합당 청년대표 국회의원 선출 특별위원회(이하 당 특위)는 11일 청년비례대표 후보로 순천출신 김광진(사진·31)씨 등 4명을 확정·발표했다.

당 특위는 이날 최종 후보 16명을 대상으로 한 심사와 청년비례대표 선거인단 투표를 통해 4분위별(25세~29세 남·여, 30세~35세 남·여)로 2명씩 모두 4명을 최종 선출했다.

이중 시민통합당 전남도당 대변인과 민족문제연구소 전남동부사무국장을 지낸 김 후보가 청년비



례대표 선거인단 투표에서 가장 많은 1245표를 얻었다. 이어 이상현(29)·장하나(여·34)·정은혜(여·29) 후보가 청년비례대표 후보로 당선됐다.

김 후보는 4명의 후보 중 가장 많은 득표수를 차지해 당 청년대표 최고위원으로 임명됐다. 민주당은 당초 4명의 청년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 2명은 당선안정권, 2명은 당선가능권에 배치키로 해 김 후보의 경우 당선안정권에 배치될 전망이다.

김 후보는 "그동안 지역 역사와 과거사문제, 청년·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관련 일을 해왔다"면서 "(저는) 정치적인 소신과 굳은 의지가 있다. 계파에 흔들리지 않고 청년·청소년의 목소리를 어느 자리에서든 당당히 외칠 자신이 있는 만큼 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을 개발해 청년·청소년들이 꿈꾸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야권연대 총선 '野風' 기폭제

민주 - 무당파총 흡수 진보 - 교섭단체 희망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야권연대가 진통 끝에 성사돼 4·11 총선에서 과급력이 어느 정도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권연대 협상 성적표에 대해선 양당의 선택이 다르지만, 총선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기대감이 상당하다.

◇'야풍' 기폭제 되나=민주당은 야권연대 전략지역 중 자체 후보로 당선될 수 있는 6곳 정도를 진보당에 넘겼지만 야권연대로 이를 훌쩍 넘는 결과를 얻을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진보당은 야권연대로 20석 이상인 원내교섭단체 구성 목표에 희망을 품게 됐다. 다만, 민주당 지지자들의 표를 얼마나 흡수할지가 관건이다. 17~18일 실시될 양당 후보 간 경선 결과도 주목된다.

가장 관심을 끄는 지역은 민주당이 상범 전 부구청장과 김창현 전 동구청장이 맞대결을 펼치는 울산 북구다. 호남지역은 협상 초반 진보당 후보가 정당득표율을 높이기 위해 총선까지 완주해도 좋다는 민주당의 제의에 따라 전략지역인 광주 서구 을을 제외하고 야권연대 대상에서 제외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초점전 지역이 수도권에서 충청권 등으로 넓어지는 상황에서 야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MB 및 새누리당 심판연대가 탄생한 셈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무당파층을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야권연대 합의 득실=협상 자체의 양당 득실을 따질 경우 관심의 초점이던 전략지역 및 경선지역에서 민주당이 진보당에 상당히 양보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협상 막판 진보당이 강력하게 전략지역으로 요구한 광주 서구 을 등을 놓고 양당이 양보 없는 대결을 펼치다가 한병숙 대표의 결단으로 전략지역으로 결정됐다는 후문이다.

예상보다 늘어난 경선지역은 양당이 막판 서로 한걸음씩 양보했다는 평가다. 애초 야권 단일후보로 유력한 진보당 이정희·심상정 공동대표, 노회찬 대변인 등이 경선을 치르기로 한 대신 민주당도 경선 불가를 주장하던 전략지역에 대한 경선을 수용한 것이다.

민주당의 전략공천 1호인 고(故) 김근태 상임고문 부인인 인제근씨가 출마할 도봉갑, 이화영 전 YMCA 사무처장이 출마한 경기 군포 등이 이들 지역이다. 진보당은 이번 결과에 만족해 하는 분위기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초박빙' 북 갑·을, 남구, 광산갑 ... "투표함 열어봐야 안다"

광주 민주 3차 경선

4·11 총선 최종 후보를 가리는 민주통합당 3차 경선이 12일 광주지역 4곳에서 치러진다. 현재 이들 지역구는 초박빙의 대결이 펼쳐지는 곳이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공천=당선'이라는 공식이 당연시되는 상황에서 누가 최종 공천 티켓을 거머쥐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북구 갑에서는 현역인 강기정 의원과 이형석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강 의원의 우세가 점쳐졌지만, '반(反) 강기정 연대'가 형성되면서 구도는 미궁으로 빠졌다. 민주당 컷오프에서 탈락한 임현모·김경진 후보 등이 이 후보 지지를 선언한 것이다. 지난 9일 불거진 '홍보물 절취 의혹' 공방전도 양 후보에게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북구 을은 혼전을 거듭하고 있다. 임내현·최경주·최경환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나 지지도·후보직함도 면에서 오차범위 내에서 혈전을 벌이고 있다.

컷오프에서 탈락한 김재균 현역 의원과 시·구의원들이 앞다퉈 지지선언을 하면서 이들 3명의 후보가 확보한 선거인단의 표심이 최대 승부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광산구 갑도 현역인 김동철 의원과 전갑길 전 의원이 공천 티켓을 놓고 리턴매치 성격의 초박빙 승부를 벌이고 있다. 3자 대결구도에서 컷오프된 이정남 전 시의원이 전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경선판은 더욱 요동치고



경선 투표소 설치

민주통합당의 광주 남구, 북갑, 북을, 광산갑 후보가 최종 선출되는 경선 현장투표를 하루 앞두고 11일 남구선거관 직원들이 남구청 회의실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있다. 또 현직 구청장과 잠재적 구청장 후보들의 대리전도 지켜볼만한 포인트다.

남구는 현역인 장병만 의원과 민주당 김병진 후보가 대결을 벌인다. 현역의원과 정치신인의 대결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장 의원은 활

발한 의정 활동과 지역예산 확보 등의 공을 내세우고 있고, 짧은 층을 중심으로 인지도 높여온 김병진 전 청와대 행정관은 폭넓은 중앙인맥을 바탕으로 정치권의 세대교체를 주장하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어쨌든 꿈은 아무져서 좋다

Beyond Security Towards Peace

www.seoulss.go.kr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첫걸음!

- ✓ 핵안보정상회의는 핵테러 방지를 위한 세계 최대의 평화서밋입니다
- ✓ 전세계 58명의 정상들이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서울에 모입니다
- ✓ 핵무기에 이용되는 고농축 우라늄, 플루토늄을 줄이는 실천방안을 논의합니다
- ✓ 대한민국이 의장국으로 세계 평화와 안보에 주도적으로 기여합니다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3.26 ~ 27 코엑스



핵안보정상회의 준비위원회

▶ 이 그림은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기념 국제 어린이 평화미술전 출품작입니다